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을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비행기가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 도착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 주악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리병철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련합부대장조와 군부대장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가 시작되자 요란한 폭음이 울리는 속에 붉은 매들이 련속 하늘로 날아올랐다.

비행지휘성원들은 금상승반전, 전투선회비행, 정지비행, 1만 8,000여m의 상승한도비행, 30m의 초저공비행, 공중기교비행 등 어려운 비행동작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목표구역에 명중탄을 퍼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과감하고 능숙한 비행훈련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오전경기가 끝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마련한 야전식사에 초대하시였다.

점심식사의 여가시간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협주단의 공연과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가 진행되어 경기대회의 열기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오후에도 계속된 경기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오금철 항공군상장을 비롯한 비행지휘성원들이 열적의 폭음소리를 높이 울리며 어제날의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침담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가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가 시상식발언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승을 쟁취한 비행지휘성원들과 단위에 직접 시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적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장소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곳 군부대를 항공군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마음먹고 꾸리며 전투군무구역과 생활구역은 물론 요소요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군부대 비행사들과 육탄용사들의 안해들이 출연하는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공연을 보면서 군부대 비행사들과 안해들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뜨겁게 읽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헌성과를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싸움준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공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월 21일기계종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최신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꾸리자면 설계와 시공을 잘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앙의 관목있는 설계집단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1월 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공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월 21일기계종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최신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꾸리자면 설계와 시공을 잘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앙의 관목있는 설계집단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월 21일기계종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관망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망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기를 보시면서 인민군대의 체육인들이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기에서는 소백수팀이 2:0으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망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경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이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훌륭한 경기성적으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활쏘기선수들이 우승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선수들이 활쏘기를 잘한다고 치하하시면서 활쏘기경기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잡자면 다른 체육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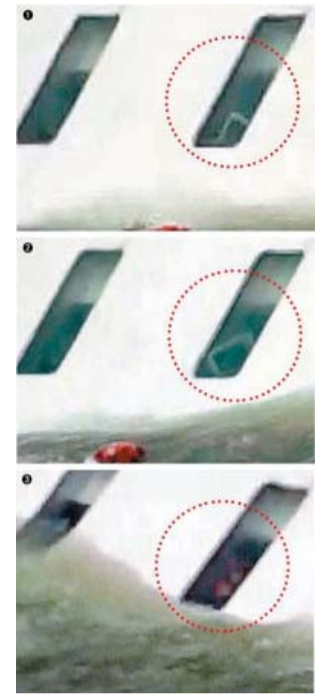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흥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본사기자

온 남북땅을 죽음의 공포지대로 만든 살인 《정권》



전관파의 시신명단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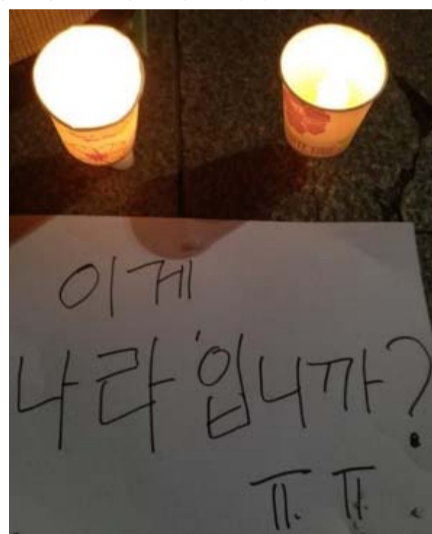


자식들을 찾으며 목놓아 울고있는 어머니들

완전히 뒤집어진 럭셔리선 《세월》호와 배에서 의자로 객실창문을 깨고 나오려고 뿔뿔이는 아이들



서울 정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조불집회참가자들



시민조불집회참가자들이 쓴 글



《박근혜 퇴진》구호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시위참가자들

남조선에서 대형객선침몰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되었지만 방방곡곡이 아직도 《세월》호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려객선에 오른 근 500명에 달하는 승객들 가운데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나어린 학생들인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다. 나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승객이 구원의 손길을 잃은채 눈앞에서 대형객선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거치른 바다속에 수장된것이다. 가라앉은 배안에서 러져나온 수많은 학생, 승객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있다.

피해자가족들은 퍼러지는 절망감과 분노에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고있다.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일부 학생들은 집안에서도 창문으로 바다가 들어오는것만 같은 환각에 빠져든다고 한다. 분향소들로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고 이번 참

사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조불은 남조선 각지에서 계속 타고르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성토하는바와 같이 이번 《세월》호참사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빚어낸 특대형 인재이다.

에도 두지 않는 이 행렬인간, 《유신》후에는 피눈물을 뿌리며 청와대를 찾은 유가족들을 매몰차게 만나주지도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아래에다 밀어버리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종자가족들의 피눈물나는 곡성과 절규, 각각각층의 불만이 고조되자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소집한 박근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선장이 살인파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등의 책임도 없는듯이 몸빼기에 달라붙었다. 슬픔과 분노가 사래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사표》를 내놓고 《국무총리》를 또 다른 제물로 내던지였다.

면 서방언론들까지 책임회피에 골몰하는 박근혜를 인간이 아니라 살인마라고 하였겠는가. 지금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격분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박근혜에게 청와대임명권을 쥐어준 유권자들까지도 그에게 속히 온 자기들의 가슴에 막심한 후회와 저주가 짙 차있다고 호소하고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동족대결각본인 《무인기사건》의 《복소행》결과 그 누구의 《핵위협》설을 내뿜으며 폭발직전에 이른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고 여론의 시선을 따대로 돌리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와 같은 살인마, 독재자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제 2, 제 3의 《세월》호참사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 천하의 재앙거리는 하루속히 제거하여야 마땅하다. **정확준**

꽃은 지지 않는다

랑 홍 일

어이하여 화창한 봄날의 락화로 차디찬 파도우에 떠다니는거냐? 왜서, 무엇때문에 광란하는 파도속 갇디겼은 수심속에 미래를 물었느냐?

잠자리날개인양, 피어나는 꽃잎인양 환희와 열정의 봄기운 더해주고 얼굴에 피어난 맑고 그윽한 향기로 그늘진 부모들 가슴에 햇빛을 주던 너희들

꿈도 많았으리라 같이 가자던 귀여운 동생 무사히 다녀오라 손짓던 엄마, 아빠들 그 사랑으로 행복의 미소짓던 아이들

하나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즐거움과 망명으로 엮여오던 소중한 꿈 너희는 어디에 물렸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누워있느냐?

《엄마, 걱정마. 세말 자고 와요.》 마치도 이웃나들이가듯 하던 말 방안에 훈향으로 남긴 그 목소리 부모들 가슴에 피의 절규로 새겨놓고

아, 애석하구나! 너무도 절통하구나! 침몰하는 《박근혜》호에 피어나 매아닌 서리에 락화로 변해버린 너희들이아

너희들 처음 안은 엄마들 미래를 추복하고 너희들 무한한 희망과 랑망의 앞날을 꿈 꿔졌던 첫걸음마 새긴 척박한 대지에 버림당해 비예의 페지로 남뉘를 적시는 아이들아...

보아라 너를 낳아키워온 부모들의 손에 네 포때, 오빠, 동생들의 손과 손에 하얀 꽃송이들 피어 울고있구나

너희들 결코 질수 없나니 황량한 땅의 저 하늘에 솟은 분노의 함성 수천만의 피눈물, 절규의 웨침속에 너희들은 절대로 지지 않는 꽃송이들

아, 아픔은 눈물만이 아니었구나 대지에 노호하는 조불의 바다였으니 삼켜버리리라, 태워버리리라 불행의 화근 박근혜무리들!

공화국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말한다

남북어머니들과 함께 위치고싶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넘었다. 결코 짧다고 할수 없는 나날이 흘렀지만 제주도로 수락여행을 가다가 번을 당한 수백명의 교동학교학생들중 단 한명도 살아돌아오지 못했다니 이런 참담한 비극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두 자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로서, 녀성으로서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부르며 찾는 부모들에게 차가운 아들 딸들의 시신만을 던져준 저 주로은 남조선사회와 청와대에 앉아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하는 치마두른 박근혜에 대한 저주와 분노로 심장의 피가 막 끊는것만 같다.

이번 사고는 철저히 사 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남조선사회의 색은 구조가 낳은 인재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단

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들이기에 노래에도 자식들을 놓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행복이며 기쁨이라고,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네가 제일 좋다는 엄마들의 노래가 있는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 는 자식들의 싸늘한 시체를 받아안고 흘리는 부모들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아직 시신조차 건지지 못해 더욱 가슴저저하는 어머니들과 녀성들의 운명이 가라앉아 버리고있다.

내 살벌이같지만 한 이 아이들을 과연 누가 죽였는가. 돈에 관연이 되어 아이들의 목숨이 귀한지도 모르고 마구 내뿜고 있는 합성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백명 오빠, 언니들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루수가 없다.

구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다가 《엄마, 사랑해요》라는 손전화통보문을 남기고 《세월》호와 함께 바다속으로 사라진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그러면 오빠, 엄마, 형제 자매들의 모습일까. 못다 이룬 배움의 꿈일까.

오늘 남북땅 어디에서나 우리 나이에 또래의 학생들이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이런 (정부) 필요하지 않아요.》, 《박근혜가 책임져라》고 웨치는 합성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백명 오빠, 언니들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루수가 없다.

나는 남해바다에서 령으로 떠도는 오빠, 언니들에게 마음속으로 웨친다. 만일 오빠, 언니들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저주로은 남 남북땅이 아니라 밝은 햇빛 넘치는 북녘땅에서 태어나라 고, 그래서 나랑 함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유원지, 아이들의 야영소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자고.

중구역 류성초급중학교 학생 정향미

이 세상 어머니들의 분노

얼마전 신문에는 남조선에서 있는 《세월》호침몰참사로 금육같이 귀한 아들딸들을 잃고 피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는 남조선녀성들의 모습이 실리였다. 기울어진 선실에서 딸에게 손전화로 찍어 보낸 마지막사진을 보여주며 역장이 무너져와 말을 못하는 너인도 있었고 자식이 보낸 엄마를 사랑한다는 마치

오빠, 언니들이 다시 래어날수 있다면...

수락여행을 간다고 웃으며 떠났다가 하루아침에 차디찬 남해바다속에 잠긴 남녘의 오빠, 언니들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루수가 없다. 구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다가 《엄마, 사랑해요》라는 손전화통보문을 남기고 《세월》호와 함께 바다속으로 사라진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그러면 오빠, 엄마, 형제 자매들의 모습일까. 못다 이룬 배움의 꿈일까.

오늘 남북땅 어디에서나 우리 나이에 또래의 학생들이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이런 (정부) 필요하지 않아요.》, 《박근혜가 책임져라》고 웨치는 합성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백명 오빠, 언니들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루수가 없다.

나는 남해바다에서 령으로 떠도는 오빠, 언니들에게 마음속으로 웨친다. 만일 오빠, 언니들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저주로은 남 남북땅이 아니라 밝은 햇빛 넘치는 북녘땅에서 태어나라 고, 그래서 나랑 함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유원지, 아이들의 야영소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자고.

중구역 류성초급중학교 학생 정향미

지금 슬픔과 분노의 조불이 거리를 메우고있는 남조선에서 《가만히 있으라》가 한명도 구원되지 못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흔히 정치는 백성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한다. 만약에 정치가 인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라면 사람들은 당국이 하라는데로만 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정치는 부자들과 특권층을 위해 절대다수의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정치이다. 이런 정치하에서 인민들이 당국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손에 초불든 남북의 인민들

만히 있다면 차레질것은 비참한 삶이고 죽음이다. 력대로 총칼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출현했던 남조선의 독재 《정권》들은 권력유지와 치부를 위해 인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설교해왔다.

자신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당국을 비난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면 각종 악법과 최루탄을 휘둘러 탄압하고 잡아두었으며 《빨갱이》니, 《리적행위》니 하며 사람들을 인민들에게 물리워왔다. 남조선에서 《정권》은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위압과 기만, 사기와 협잡, 위협과 공갈의 정치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도리어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레질것이란 더 참

중과 죽음을 강요하는 색은 출이고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 없었다. 이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노서린 민심의 폭발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량심있는 언론들은 《가만히 있을수 없는 청소년들과 시민은 거리로 나왔다. 추모초불은 빠른 속도로 번지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박근혜 《정권》은 인민들에게 골백번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 시인치 않을 판에 유가족들과 인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계속 우롱하고있다.

교육부가 산하의 교육기관들에 인터넷 등에 《세월》호와 관련된 글을 절대 올리면 안된다, 처벌받

를 낳ალი고 간파한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통하지 만무하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이제 는 속지 않겠다 하고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투쟁의 거리로 나서고있다.

민심은 인민들을 불행과 죽음으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결코 용서치 않는다. 4.19가 그렇게 터져올랐고 광주민권투쟁, 6월인민항쟁, 반미의 초불바다가 그렇게 떠올랐다.

잔인한 《정부》와 세상을 저주하며 꽃망울이 피기도 전에 바다속에서 죽어간 수백명 아이들의 원혼을 담고 분노의 초불은 남조선전역에서 더 활활 타고르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